



### 화순전남대병원-광전지역혁신플랫폼, 협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과 손잡고 의학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사진)

18일 화순전남대병원에는 최근 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 의생명 연구원장실에서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과 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김형석 원장과 안재숙 부원장, 김슬기 연구기획부장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박성수 총괄운영센터장, 박상익 에너지신사업육성 사업단장, 김기태 전략기획실장 등이 참석해 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산학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며, 공동 R&D 과제 기획 및 발굴 등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노병하기자



### 광주 광산구, 위기 가정 주거환경 개선 나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은 지난 16일 바람꽃주거환경개선봉사단과 힘을 모아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 활동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10년 전 가족과의 단절 후 시각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무력감을 겪으며 가사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불, 침대 등 생활 필수품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으며, 집안 곳곳에는 생활 쓰레기와 곰팡이가 쌓여 생활이 불가능했다. 아침 일찍부터 봉사단원들과 신가동 직원들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집안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등 대대적인 청소를 진행했다.

최영자 바람꽃주거환경개선 봉사단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가 깨끗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할 계기가 됐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 공군 제1전비, 환경정화 및 위문품 전달활동

광주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제1전비)이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전북 고창과 나주를 방문해 환경정화 및 위문품 전달활동을 펼쳤다. (사진)

제1전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북 고창 미여도에서 진행된 환경정화활동에는 장병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해안가에 버려진 폐비닐, 유리병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15일에는 나주 산포면 등정리와 내기리에 위치한 경로당 4곳을 방문해 다과와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고 지역주민들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어진선 하사는 "전보다 깨끗해진 바다를 보고 기뻐할 지역 주민분들을 생각하며 환경정화활동에 임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선물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준명 기자



### ACC재단-영화의전당, 문화콘텐츠 협약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과 (재)영화의전당은 지난 14일 ACC재단 다목적회의실에서 문화예술콘텐츠 유통 및 상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ACC재단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 콘텐츠 유통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상호 유기적 협력 등 문화 공기관 상생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양 기관의 우수한 콘텐츠를 상호 교류하고, 공동제작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유관기관들과의 협업 구조를 활용해 ACC 콘텐츠 유통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 광주교통공사, 위험성평가 사례대회 장관상

광주교통공사가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주최한 '2024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 관리 노력 등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지난 17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고 개선해 가는 산업안전 활동으로,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606개의 사업장이 참여해 1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광주교통공사의 이번 수상은 전국 철도 운영기관은 물론,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최초의 성과로 알려져, 광주도시철도 안전 관리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입증했다는 평이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교통공사는 안전파수꾼 제도, 외부 전문가들과의 현장 합동 점검, 위험성 평가 결과의 전사적 공유로 유사 사례 방지 등 노하우를 공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병하기자



### 전남도, 제2회 숲속 캠핑대회 성료

전남도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린 전남 숲속 캠핑대회가 참가자들이 온가족 함께 힐링하며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행사로 치러졌다고 밝혔다. (사진)

산림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2회째 개최된 전남도 숲속 캠핑대회는 자연환경과 산림 레포츠를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 130여 팀 500명의 참가자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숲속 캠핑대회는 '특별한 오늘 이야기'를 주제로 가족과 캠핑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지역 관광지를 돌며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성에서 장보기 이벤트를 위한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삼삼오오 랜선여행지 10선 등 지역관광과 연계한 투어 행사가 이뤄졌다. 오지현 기자



### 광주도시공사,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개최

광주도시공사는 18일 광주대학교에서 지역청년 및 대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

이번 설명회는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청년들과 직접 마주하며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와 취업전략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단순한 채용 정보 제공을 넘어 채용상담 자율토록을 통해 지역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행사는 광주도시공사 사업소개, 채용절차 및 취업전략, 현직자 자율토록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특히 서류작성 가이드와 면접전형 블라인드 제도 안내 등 상세한 채용전형별 추진전략은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현직자를 직접 만나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뜻깊은 기회"라며 "향후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노병하기자

### 박연수, 전남편 송중국에 "자식 전지훈련 막고 캐나다?"

탤런트 박연수(사진)가 최근 연달아 전(前) 남편인 축구선수 출신 송중국을 저격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리며 양육비 지급 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박연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괴물: 네스호의 비밀' 포스터를 올리고 "너 무서운 것 없는 사람인지는 알았는데, 수신 차단에 자식은 전지훈련도 못 가게 만들어놓고 너 캐나다 가면 끝이구나. 너만 사랑하는 너 진짜 최고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 '너'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명확히 적지 않았지만, 전 남편인 송중국이 것이라는 시선이 우세하다.

이날 게시물에 언급된 '캐나다' 등이 최근 송중국이 한 방송에 출연해 캐나다 이민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앞서 박연수는 지난 2일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양육비"라고 적은 글과 함께 한 캐릭터가 엘로카드를 들고 경

고하는 그림을 캡처해 올린 바 있다. 지난 16일 MBN 리얼버라이어티 '가보자고(GO)' 시즌3에 출연한 송중국은

"현재 캐나다 이민 계획이 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좋아서 계속할 생각이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 영주권이 나왔다. 캐나다가 축구 시장이 괜찮아 보려고 한다. 외국 생활은 해본 적 없었는데, 캐나다에 가게 되면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연수는 2006년 송중국과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며 2013년 MBC 예능 '아빠! 어디가?'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15년 이혼해 박연수가 친권, 양육권을 갖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딸 송지아는 프로 골프선수를, 아들 송지욱은 축구선수를 준비 중이다. 박지혜 기자



### 여성국극 알린 '정년이' 16.5% 최고 시청률 기록... 종영

여성국극의 매력을 뽐낸 김태리 주연의 '정년이'가 자체 최고 기록인 시청률 16%대로 막을 내렸다. (사진)

18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tvN 주말극 정년이 마지막회인 12회는 전국 유료가구 기준 16.5%를 기록했다.

지난 11회(12.8%)보다 3.7%p 올랐으며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정년이'는 1950년대 소리 하나만은 타고난 소녀 '정년'(김태리)의 여성국극단 입성과 성장기를 그렸다.

마지막회에서는 재정난에 빠진 매관

극단단이 마지막 공연 '쌍탑전설' 무대를 올리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해당 공연에서 정년은 오디션을 통해 백제의 석공 '아사달'을 맡으며 '육경'(정은채)과 다른 남역의 매력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한편, 김소연 주연 JTBC 주말극 '정속한 세월즈' 12회는 8.6%로 종방했다. 11회(5.7%)보다 2.9%p 상승해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이이경 주연의 채널A '결혼해YOU' 2회는 1회(0.8%)보다 0.1%p 떨어진 0.7%에 그쳤다. 박지혜 기자